

12-27 (통권 제 498호)

2012. 7. 2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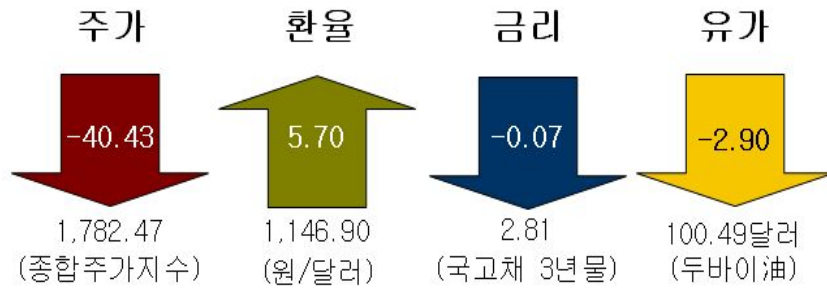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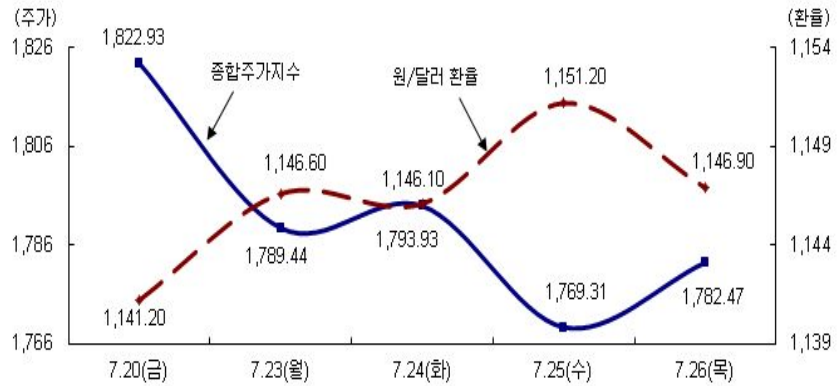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20~7.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광 석 선임 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 자영업자의 개념과 추이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충격으로 구조조정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향하면서 급증하였다가, 2002년 이후 경제가 안정되면서 감소추세를 보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 월별추이를 보면 2012년 5월 720만명을 기록하면서, 2009년 7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자영업자가 처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양적 과다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넘는 수준으로, 3개 국가(터키 그리스 멕시코)만이 한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둘째, '多진입 多퇴출'이다.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되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들은 준비 없는 창업을 하고 있다. 과반수의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창업경험도 부재하다. 네 번째 문제는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41.2%가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로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연령별로 보면 50대 자영업 창업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섯째, 생활밀접형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은퇴자들이 음식점, 호프집 등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문제는 자영업의 영세화이다. 창업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트럭 등의 운송수단이나 노점을 영업장소로 하는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덟째, 수익성이 미약하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수준이다. 아홉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평균 약 9천만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기간이 매우 짧다.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3년을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

■ 정책 대응 방향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창업을 아닌 재취업을 유도하여 비자발적 창업을 감축하여야 한다. '자영업자간의 과다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 정책' 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자율 규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이 필요하다. 셋째,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춘 자영업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자영업주의 고용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건실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 고학력자, 은퇴자 고령자 등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자영업자의 개념과 추이

자영업자 개념	- (OECD 기준)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국내 자영업자 규모	- 외환위기 충격으로 급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월별 추이를 보면 2012년 5월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래 최고치 기록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자영업자 양적 과다	- 자영업자 비율 OECD 국가 중 4위
다진입 다퇴출	- 연평균 60만개 사업체 진입, 58만개 퇴출 -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준비 없는 창업	- 자영업자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과반수가 6개월 미만
자영업간 경쟁 과다	- 자영업자의 41.2%가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로 고려
50대 창업자 주축	- 50대 자영업 200만, 지속적 증가
생활밀접형 자영업 증가	- 은퇴자들이 음식점, 호프집 등의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
자영업의 영세화	- 창업자금이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증가하였으나,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감소
수익성 미약	- 자영업자 월소득 150만원 이하 - 64%의 소상공인 월세 부담
가계부채 누증	- 자영업 가구 가계부채 평균 9천만원 - 2008-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 18.6%
짧은 생존기간	- 자영업 3년 생존율 50% 이하

정책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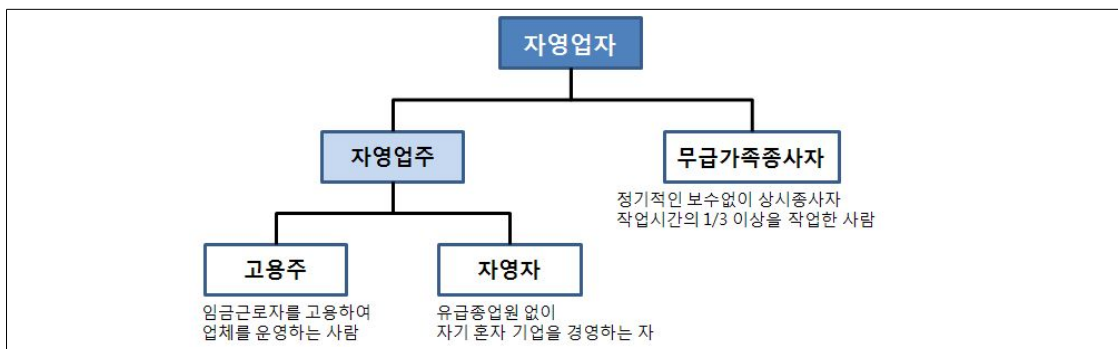
- (창업이 아닌 재취업 유도) 비자발적 창업 감축
- ('자율 규제 환경' 마련) 자영업의 과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업종별 자영업 게시판 적극 활용
- ('준비된 창업' 육성) 창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자가 충분한 준비를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 (계층별 자영업 진흥 정책) 연령별·학력별 소득수준별 등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 마련 필요

1. 자영업자의 개념과 추이

○ (개념) 자영업자¹⁾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됨

- 통계청의 경우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국제 비교를 위해 OECD기준²⁾과 국회기준³⁾의 정의에 따라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함
- OECD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self-employment)는 고용주(employers),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생산자협동조합 회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무급가족노동자(unpaid family workers)로 구성됨
-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정함

< 자영업자의 개념 >



자료 : OECD(2010)와 국회예산정책처(201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한편, **소상공인**⁴⁾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하고 자영업에 속하는 부분집합에 해당

< 소상공인의 범위 >

	5인	10인	50인	300인
제조·건설·광업·운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등 기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

1) 업종, 종사자 규모,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자의 형태에 따라 구분

2) OECD(2010), "Factbook."

3) 국회예산정책처(2011.9),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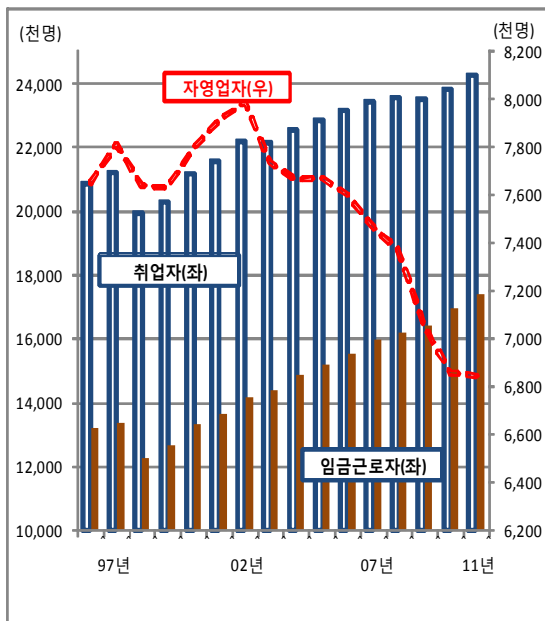
4)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에서 사용하는 개념

○ (자영업자 추이) 외환위기 직후 급증한 다음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추이) 자영업자 전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다가 경제가 안정되면서,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국내 자영업자는 1999년 763만 명에서 2002년 798만명으로 급증
 - 자영업자 비율은 1997년 36.8%에서 증가하여 1998년 38.3%의 최고점을 기록
 -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향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2002년 이후 경제안정과 함께 감소세 지속
- (최근 월별추이) 한편, 최근 들어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면서 2012년 5월 들어 자영업자 수가 720만명을 기록하여, 2009년 7월 724만명을 기록한 이래 최대치를 보임
 - 자영업자 규모는 겨울에 감소하고, 봄·가을에 증가하는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 수가 2009년 7월 이래 2년 10개월만의 최고점을 기록한 점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경제적 적신호로 판단될 수 있음

< 장기 자영업자 추이 >

(단위: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월별 자영업자 추이 >

(단위: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① (자영업자 양적 과다) 자영업자 비율 OECD 국가 중 4위

○ 2010년 기준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 데 비해, 한국은 28.8%로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냄

- OECD국가 중 오직 3개 국가만이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음
 -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는 터키(1위, 39.1%), 그리스(2위, 35.5%), 멕시코(3위, 34.3%)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은 각각 7.0%, 12.3%의 안정적인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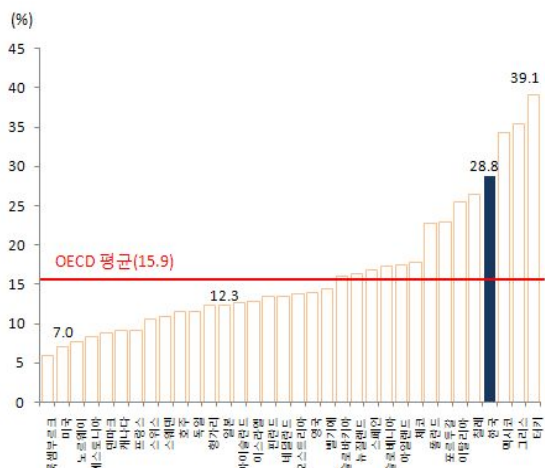
○ 비자발적 자영업 선택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비율이 과다한 것은 국가경제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평균소득이 낮기 때문에⁵⁾,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의 질적 구조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1인당 GDP 수준을 나타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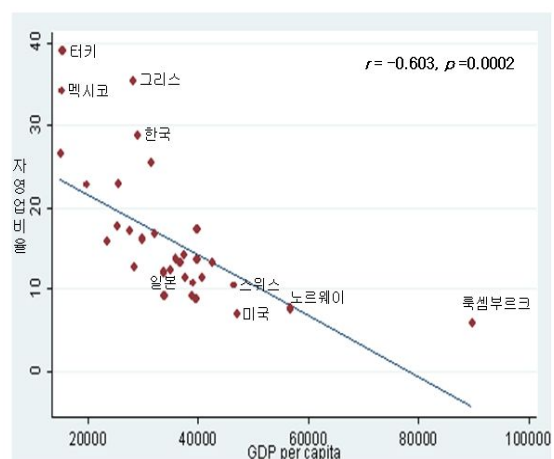
-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1인당 GDP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낮은 자영업자 비율을 나타낸 반면,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OECD국 자영업자 비율 현황 >



자료 : OECD 「Factbook 2011-2012」

< 1인당GDP와 자영업자 비율 >



자료 : OECD 「Factbook 2011-2012」

5) 금재호, 윤미례, 조준모, 최강식, 2006, “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6) 자영업자 비율과 1인당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상관관계 분석결과 -0.603의 기울기를 보였고, p-value가 0.0002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임.

② (多진입 多퇴출) 연평균 60만 개 사업체 진입, 58만 개 퇴출⁷⁾

○ 전체적으로 매년 진입한 사업체수 만큼 퇴출됨

- 2004~2009년 동안 총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추이를 보면 연평균 약 60만 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약 58만 개가 퇴출됨

○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 도·소매업은 연평균 약 15만 개의 신규 사업체가 생성되었으나, 약 15만 5,000개의 사업체가 퇴출 되어 마이너스 순진입을 보임
- 숙박·음식점업 역시 연평균 약 12만 4,000개의 신규 사업체가 생성되고, 약 12만 7,000개의 사업체가 퇴출 되어 마이너스 순진입을 보임
- 제조업도 진입보다 퇴출 사업체가 더 크게 나타나 마이너스 순진입 구조

< 연평균 산업별 신규 및 휴·폐업 현황 >

(단위: 천개 %)

산업구분	연평균 신규		연평균 휴·폐업		연평균 총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농업·임업·어업	0.3	0.1	0.3	0.1	2.2	0.1
광업	0.2	0.0	0.2	0.0	1.8	0.1
제조업	54.1	9.1	54.5	9.4	331.1	10.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0.2	0.0	0.1	0.0	1.5	0.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0.9	0.2	0.7	0.1	4.7	0.1
건설업	22.2	3.7	20.3	3.5	90.7	2.8
도매·소매업	149.7	25.2	154.8	26.8	866.3	26.7
운수업	73.1	12.3	69.3	12.0	337.8	10.4
숙박·음식점업	124.3	20.9	127.4	22.1	627.7	19.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6.2	1.1	6.1	1.1	24.0	0.7
금융·보험업	5.8	1.0	5.1	0.9	36.2	1.1
부동산업·임대업	24.3	4.1	22.0	3.8	120.9	3.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3.2	2.2	11.9	2.1	63.0	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8.1	1.4	6.9	1.2	29.5	0.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0.7	0.1	0.7	0.1	12.2	0.4
교육 서비스업	28.8	4.8	24.3	4.2	151.7	4.7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1.4	1.9	6.4	1.1	85.7	2.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0.8	3.5	20.2	3.5	102.3	3.2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51.2	8.6	46.2	8.0	357.1	11.0
산업 전체	595.3	100	577.5	100	3,246.4	100

자료 : 통계청(2011.2.)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주 : 2004~2009년 동안의 연평균값을 의미

7) 총 사업체중 자영업체는 83.2%(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비교적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자영업체의 진입·퇴출이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영업체 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음

③ (짧은 준비 기간) 준비 없는 자영업 창업

○ 자영업자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과반수가 6개월 미만

- 자영업자의 60.4%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이상 준비하는 경우는 26.0%에 불과함
- 월평균 순이익이 150만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숙박·음식업, 소매업, 오락·문화·운동 분야의 경우 각각 72.5%, 69.8%, 68.5%가 6개월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음

○ 과반수의 자영업자가 창업 경험이 없고, 많은 자영업자가 실패를 경험

- 자영업자의 64.1%가 사업체 운영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창업 및 운영 경험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31.2%가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을 통한 성공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자영업 창업 준비기간 >

	(%)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1년	1~2년	2년 이상
전체	14.2	23.0	23.2	13.5	8.6	17.4
제조업	13.4	22.8	22.7	14.0	9.8	17.3
소매업	19.5	26.1	24.2	12.7	6.2	11.3
숙박 음식업	16.0	29.1	27.4	12.8	6.9	7.9
운수 통신업	10.1	10.9	11.1	8.9	5.6	53.4
부동산 임대업	13.6	19.1	20.8	14.0	15.1	17.4
정보 기술 사업서비스업	10.2	18.2	23.3	18.2	11.6	18.8
교육 서비스업	10.9	21.7	25.2	14.7	10.6	16.9
오락 문화 운동	12.9	26.7	28.9	14.7	6.6	10.1
수리 개인서비스업	16.3	24.3	21.9	12.1	8.6	16.8

< 사업체 운영경험 >

	(%)			
	사업체 운영경험		실패경험	
	無	有	有	無
전체	64.1	35.9	31.2	68.8
제조업	67.2	32.8	36.4	63.6
소매업	63.6	36.4	27.8	72.2
숙박 음식업	79.5	20.5	34.1	65.9
운수 통신업	57.0	43.0	46.0	54.0
부동산 임대업	63.1	36.9	33.8	66.2
정보 기술 사업서비스업	65.5	34.5	26.5	73.5
교육 서비스업	59.2	40.8	20.6	79.4
오락 문화 운동	58.6	41.4	37.0	63.0
수리 개인서비스업	70.2	29.8	28.1	71.9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주 : 실패 경험은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④ (경쟁 과열) 자영업자간 경쟁 과다

○ 자영업자의 주된 경쟁 상대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41.2%가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로 인식
- 특히,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 운수·통신업 부문에서는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 자영업자로 보고 있는 경우가 각각 57.7%, 48.3%, 48.1%로 매우 높음
- '주변 대형업체'나 '인터넷 또는 TV홈쇼핑'을 경쟁상대로 고려하는 비율은 각각 25.0%, 4.5%에 이룸

○ 서울시 미용실, 학원, 치킨점, 제과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체 1km²당 평균 5개 이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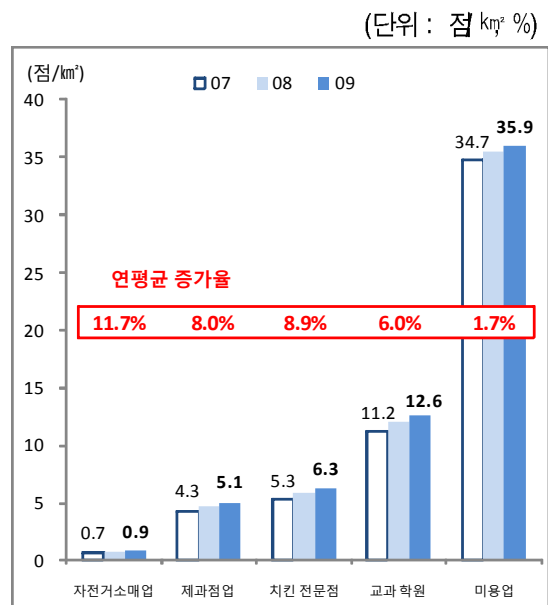
- 서울시 미용실은 1km²당 평균 35.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 과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일반교과 학원, 치킨점, 제과점은 각각 1km²당 평균 12.6개, 6.3개, 5.1개의 점포들이 입점해 있고,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주된 경쟁상대 >

	주변 소상공인	주변 대형업체	인터넷 또는 TV홈쇼핑	기타	없다
전체	41.2	25.0	4.5	0.5	28.9
제조업	31.8	24.9	6.4	1.1	35.8
전기 가스 수 도·건설업	36.5	30.7	2.5	0.3	9.5
소매업	28.5	41.3	11.5	0.1	18.6
숙박·음식업	48.3	20.5	0.2	0.1	31.0
운수·통신업	48.1	11.7	0.1	1.4	38.7
부동산·임대업	57.7	12.7	6.3	0.1	23.3
정보 기술 사 업서비스업	30.0	26.2	11.7	0.4	31.6
교육 서비스업	46.0	21.0	0.6	1.0	31.4
오락 문화 운 동	44.5	20.5	1.4	0.6	33.0
수리 개인서비 스업	46.8	26.8	1.1	0.4	25.0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 서울시 자영업 밀집도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증가율은 07-09 연평균 증가율을 가리킴

주 : 서울시 면적은 605.33km²임(서울시청)

⑤ (50대 창업자 추측) 50대 자영업 200만,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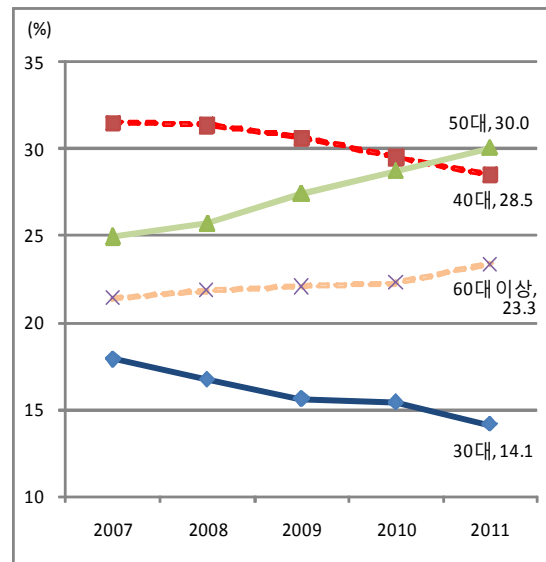
- 자영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와 고령층의 자영업 수는 증가
 - 2007년~2011년 동안 자영업 수는 청년층, 30대, 40대가 각각 연평균 -3.4%, -7.8%, -4.6%로 감소해온 반면, 50대는 2.5%의 큰폭 증가, 고령층은 0.04%의 소폭 증가를 보임
 -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인 50대 자영업자는 2007년 186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06만 명을 기록함
-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에 들어 50대가 40대를 역전하여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전체 자영업자중 50대 비율은 2007년 25.0%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30.0%를 기록하며, 40대의 비율인 28.5%를 넘어섬
 -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 비중도 2007년 21.4% 수준에서 2011년 23.3%로 증가세를 지속

< 연령별 자영업자 추이 >

(단위: 천명 %)

구분	청년층	30대	40대	50대	고령층	자영업자 전체
2007	317	1,337	2,351	1,862	1,595	7,463
2008	324	1,234	2,311	1,895	1,608	7,371
2009	301	1,101	2,159	1,935	1,555	7,052
2010	284	1,054	2,023	1,970	1,526	6,858
2011	276	966	1,950	2,057	1,598	6,847
연평균 증감률	-3.4	-7.8	-4.6	+2.5	+0.04	-2.1

< 연령별 자영업자 분포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
 주: 청년층은 15~29세, 고령층은 60세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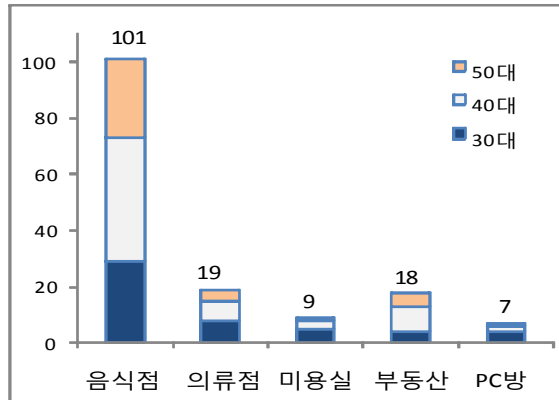
⑥ (생활밀접형 자영업 증가) 은퇴자들의 생활밀접 업종 집중 창업

○ 은퇴자들이 음식점, 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⁸⁾ 창업에 집중됨

- 창업자 100명중 35명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으로 창업
 - 생활밀접 업종의 창업자 수는 33만 명으로 전체 창업자 93만 명의 약 35.1%
 -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자중 10만 1,000명(31.1%)이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그밖에 의류점, 부동산, 미용실, PC방이 주를 이룸
- 2009년 창업자중 약 26.2%(24만 2,000명)는 2007~2008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으로, 이중 24%(5만 8,000명)가 음식점·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
 -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음식점 창업비율이 높게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은퇴후 자영업 창업 추이를 나타내줌

< 업종별·연령별 창업 현황>

(단위: 천명)



< 서울시 업종별 최다 사업자수 구별 현황>

(단위: 명)

자치구	업종	사업자수
강남구	미용실	959
	입시·보습학원	962
	화장품	736
	세탁소	401
	인테리어	763
	편의점	371
관악구	음식점	6,978
	슈퍼마켓	240
서초구	인터넷PC방	247
	꽃가게	672
송파구	가구점	106
	예체능학원	579
중구	문구점	178
	의류점	2,995
종로구	안경점	170
	서점	120
강서구	지동차수리	304
영등포구	이발소	406
마포구	호프집	1,110
은평구	철물점	100
동대문구	과일가게	102
광진구	통신기기판매	174

< 전국 시군구별 자영업자 현황>

(단위: 명)

업종	1위	2위	최저	전국평균
음식점	경기도 수원시 (8,502)	서울시 강남구 (6,978)	경북 울릉군 (158)	1,893
의류점	서울시 중구 (2,995)	대구시 중구 (2,036)	인천 옹진군 (3)	36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주 1 :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 2 : 전국평균 사업자수 = 업종별 전체 자영업자수 / 전국 시군구수(232)

8) 경제활동과 밀접한 업종으로서 전국 사업자수가 최소 5,000개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자로 정의하였고, 이 현황은 [별첨 3] 참조

⑦ (자영업의 영세화) 창업자금 규모 감소 및 무등록 영세상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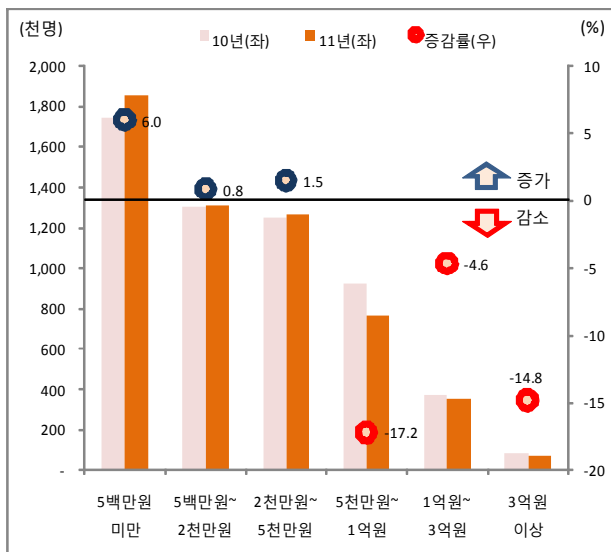
○ 창업자금이 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증가하였으나, 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감소

- 창업자금 규모가 500만원 미만, 500만원~2,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의 자영업자는 2010년~2011년 증가율이 각각 6.0%, 0.5%, 1.5%로 증가한 반면, 5,000만원~1억원, 1억원~3억원, 3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각각 -17.2%, -4.6%, -14.8%로 감소
- 2011년 창업자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186만 명(24.2%)으로 가장 높고, 500만원~2,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의 자영업자가 각각 2순위(131만 명), 3순위(127만 명)로 높은 비중 차지
- 반면, 창업자금 규모가 5,000만원~1억원, 1억원~3억원, 3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각각 77만 명, 36만 명, 7만 명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 및 트럭 자영업자가 각각 10.5%, 8.2%로 증가

- 사업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자가, 거리, 운송수단 등)는 229만 명에 달함

< 창업자금 규모별 자영업자 증감 >
(단위: 천명 %)



<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소 현황 >
(단위: 천명 %)

	사업자 등록 有	사업자 등록 無	합계	'10-'11년 사업자등록 無 증감률
자가	81	262	343	+1.6
방문	6	88	94	-15.2
거리 (노점 등)	30	190	220	+10.5
아외	178	1,458	1,636	-3.0
운송수단 (자동차 트럭 고깃배 등)	534	90	624	+8.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원이 추산

주 : 증감률은 2010-2011년 증감률을 가리킴

⑧ (수익성 미약) 자영업자 월소득 150만원 이하로 월세 및 관리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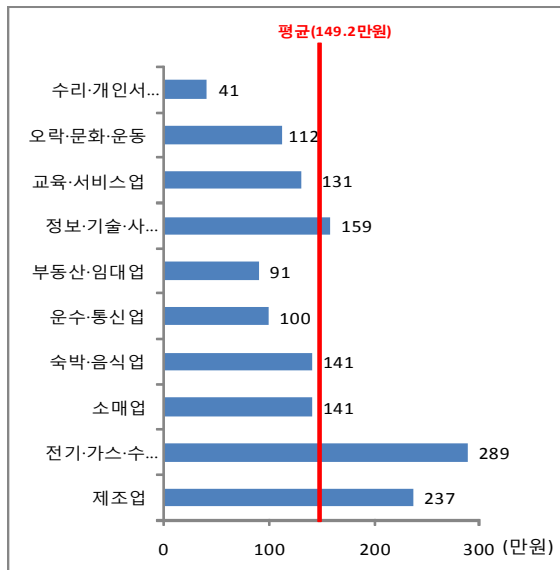
○ 전기·가스·수도·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50만원 미만 수준

- 수리·개인서비스 부문은 월평균 순이익이 41만원으로 매우 열악하고, 부동산·임대업과 운수·통신업도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 수준임
- 전기·가스·수도·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월평균 289만원, 237만원 수준으로, 이를 제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월평균 순이익은 크게 하락
- 오락·문화·운동 부문, 숙박·음식업, 소매업 등의 생계형 자영업자의 월평균 순이익도 각각 112만원, 141만원, 141만원으로 취약한 수익구조를 보임

○ 성장기와 성숙기 단계의 자영업자를 제외한 단계의 경우 월평균 순이익 매우 열악한 상황

- 개점초기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순이익이 141만원이고, 쇠퇴기와 폐업/전업 고려기에는 각각 102만원, 42만원 수준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임
- 적자 혹은 무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개점초기, 쇠퇴기, 폐업/전업 고려기에 각각 30.0%, 30.7%, 57.2%로 매우 높은 상황

< 자영업 업종별 월평균 순이익 >
(단위: 만원)



< 자영업 성장단계별 순이익 >
(단위: 만원 %)

		개점 초기	성장기	성숙기 /안정기	쇠퇴기	폐업전 업고려기
월평균 순이익 (만원)		140.5	242.3	199.6	102.0	42.2
순 이익 구간 별 (%)	적자 /무수입	30.0	20.0	18.4	30.7	57.2
	1~100만원	28.6	22.6	25.6	36.7	27.8
	101~200만원	22.8	26.1	25.9	21.5	12.3
	201~300만원	10.5	14.4	13.6	6.8	1.8
	301~400만원	4.0	6.3	5.1	1.9	0.4
	401만원 이상	4.0	10.5	9.4	2.4	0.5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 (운영 관리비 과다) 64%의 소상공인 월세 부담

- 자영업 종사자의 체감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도 월세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자영업위기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운수·통신업의 사업장 소유율이 98.2%로 매우 높은 이유는 자동차를 사업장으로 하는 운수업의 특성 때문이며, 운수·통신업을 제외한 경우 소상공인의 21.2%만이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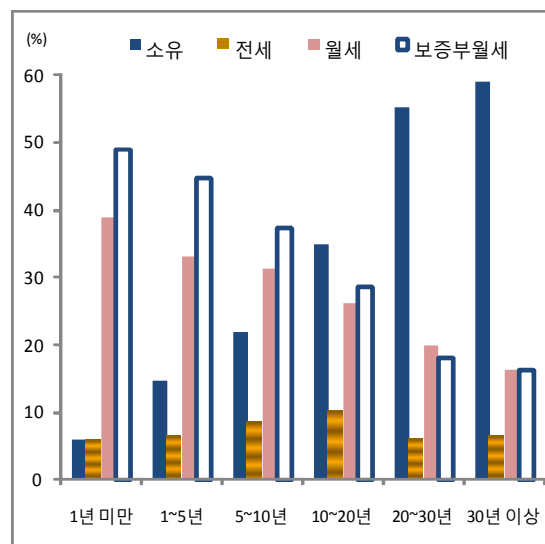
○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월세 및 보증부월세 의존율이 높고, 영업기간이 높을수록 사업장 소유율이 높음

- 영업기간이 30년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율이 59.1%, 20~30년인 경우 55.3%로 사업장 소유율이 높은 반면,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세 및 보증부월세 의존율이 87.8%로 역전적 관계를 보임
- 영업기간이 짧은 오락·문화·운동 부문의 월세 의존율은 78.1%, 부동산·임대업은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부문별 사업장 소유형태 >

	소유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기타
전체	27.2	8.0	29.0	35.0	0.8
제조업	31.6	8.1	30.1	29.9	0.3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23.9	14.3	27.5	33.8	0.6
소매업	25.2	8.5	32.4	33.2	0.7
숙박·음식업	21.2	6.3	31.9	39.3	1.3
운수·통신업	98.2	0.4	0.6	0.6	0.1
부동산 임대업	13.5	8.0	36.9	40.8	0.8
정보 기술 사업 서비스업	18.3	10.2	29.8	40.6	1.1
교육 서비스업	14.4	9.2	30.4	44.7	1.5
오락 문화 운동	13.1	7.4	31.2	46.9	1.5
수리 개인서비스업	21.1	9.0	30.8	38.6	0.8

< 영업기간별 사업장 소유형태 >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 (전통시장 자영업자) 월세와 관리비 부담 가중

- 점포의 월세 의존율은 상승하고, 점포소유는 감소
 - 전통시장 점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의존율이 2006년 65.2%에서 7.0%p증가하여 2010년 72.2% 기록
 - 2006-2010년 사이 보증부월세 의존율이 52.7% → 55.2%로 2.5%p 증가하였고, 월세의존율이 12.5% → 17.0%로 4.5%p 증가함
 -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006년 28.4%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더욱 하락하여 24.4%를 기록하면서 4.0%p 감소함
- 전통시장 점포크기는 감소하고, 관리비는 급증
 - 평균 점포크기는 2006년 9.4평에서 2010년 8.7평으로 연평균 -1.9% 감소
 - 반면, 월평균관리비는 2006년 6.4만원 → 2008년 20.0만원 → 2010년 21.8만원으로 연평균 35.9% 상승
-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연령 증가하고, 고졸이하 학력자가 대부분
 - 점포주 평균연령 2006년 51.6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53.7세에 이룸

< 전통시장 점포주 특성 및 점포실태 >

(단위 : %, 만원 평 명 세)

구분	점포 소유형태				점포운영환경			종사자 고용형태				점포주 특성				
	소유 (%)	전세 (%)	보증부 월세 (%)	월세 (%)	월평균 관리비 (만원)	점포 크기 (평)	평균종사자수 (명)	무급가족 종사자 (%)	일용 근로자 (%)	상용 종사자 (%)	임시 근로자 (%)	평균 연령 (세)	학력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2006	28.4	6.5	52.7	12.5	6.4	9.4	1.4	87.1	3.3	8.0	1.6	51.6	34.9	55.9	4.8	4.5
2008	24.4	3.1	61.3	11.2	20.0	10.8	1.7	86.6	4.1	7.5	1.8	52.9	41.8	44.1	5.0	9.2
2010	24.4	3.4	55.2	17.0	21.8	8.7	1.6	-	-	-	-	53.7	40.3	47.3	5.1	7.3
06-10 증가율	-4.0 %p	-3.1 %p	+2.5 %p	+4.5 %p	+35.9 %	-1.9 %	+3.4 %	-	-	-	-	+1.0 %	+5.4 %p	-8.6 %p	+0.3 %p	+2.8 %p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주 : 보증부월세는 “점포를 빌려 쓰는 대가로 보증금을 건 후 추가적으로 다달이 내는 돈”을 뜻하고, 월세는 보증금 없이 대가를 다달이 내는 경우를 의미

⑨ (가계부채 누증) 자영업 가구 가계부채 9,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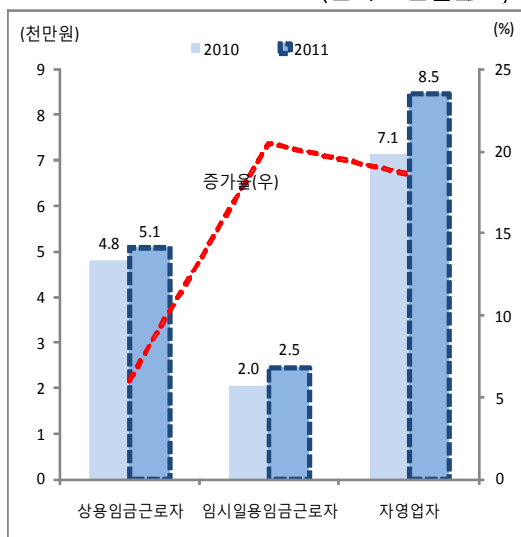
○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수준은 상용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반면, 2008~2011년간의 증가율도 높아 가계부채 문제 심각

-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가구의 2011년 가계부채 수준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9,000만원을 기록
- 증가율 측면에서도, 상용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계부채 수준이 2010년 4,80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5.9%) 증가한 반면, 자영업 가구는 7,100만원 수준에서 1,400만원(18.6%) 증가

○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이유는 주로 창업비용 때문으로, 평균창업비용이 약 6,600만원에 이릅니다

- (산업별 창업비용) 오락·문화·운동부문과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은 1억원 근접하고, 숙박·음식업도 약 7,500만원에 이릅니다
- (입지별 창업비용) 백화점/할인점 내 입점하기 위한 자영업 창업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집합상가의 경우도 8,400만원 수준에 이릅니다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
(단위: 천만원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 평균 창업비용 >

(단위: %, 만원) (단위: 만원)

산업구분	자기지분 비율	평균창업 비용	입지구분	평균창업 비용
전체	74.8	6,570	전체	6,570
제조업	74.1	6,808	재래시장	3,776
전기·가스·수도·건설업	76.2	9,139	아파트상가	7,596
소매업	75.5	6,198	백화점/할인점내	10,861
숙박·음식업	69.9	7,540	주택가 단독점포	5,606
운수·통신업	76.7	4,265	도로변 상점가	6,686
부동산 임대업	83.4	4,892	집합상가	8,377
정보기술 사업 서비스업	74.1	6,726	지하상가	5,394
교육 서비스업	73.6	6,769	공단	12,040
오락 문화 운동	71.7	9,765	개인택시/용달	4,288
수리 개인서비스업	69.7	4,338	기타	13,45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⑩ (짧은 생존기간) 자영업 3년 생존율 50% 이하

- 신규 사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1년 72.6%, 2년 56.5%, 3년 46.4%로, 절반 이상의 신규 사업체가 3년이 안되어 퇴출
 - 2004-2008년 동안의 연평균 신규 사업체 약 61만개 중 약 32만개 퇴출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건설업 생존율 매우 낮음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신규 사업체는 생존율이 가장 낮고, 1년 생존율이 61.5%, 2년 생존율이 43.6%로 과반수 이상이 2년내에 휴·폐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1년 생존율이 65.2%, 2년 생존율이 46.9%로 과반수 이상 2년내 퇴출

< 산업별 신규 사업체 생존율 현황 >

(%)

산업구분	신규 사업체 평균 생존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농업·임업·어업	80.2	70.5	63.8	56.7	43.3
광업	75.1	58.9	49.4	43.5	42.9
제조업	75.0	59.2	49.1	42.2	38.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5.3	66.0	59.2	48.9	57.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71.6	57.0	48.5	45.0	41.1
건설업	69.8	51.5	40.9	33.6	27.8
도매·소매업	70.8	54.4	44.5	37.5	31.6
운수업	71.6	55.4	45.5	37.3	32.6
숙박·음식점업	71.6	54.1	43.3	35.7	29.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61.5	43.6	33.9	28.9	23.3
금융·보험업	71.6	57.1	49.5	43.5	39.2
부동산업·임대업	72.2	56.7	47.4	40.4	33.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0.2	54.4	44.7	37.9	33.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65.2	46.9	37.1	30.6	26.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91.1	85.0	78.4	73.7	72.1
교육 서비스업	77.5	62.5	51.7	43.6	36.4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88.0	80.5	74.2	68.6	60.7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71.8	54.9	44.0	35.6	32.2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78.0	63.8	54.4	47.8	41.6
산업 전체	72.6 (443천개)	56.5 (351천개)	46.4 (296천개)	39.2 (261천개)	33.4 (209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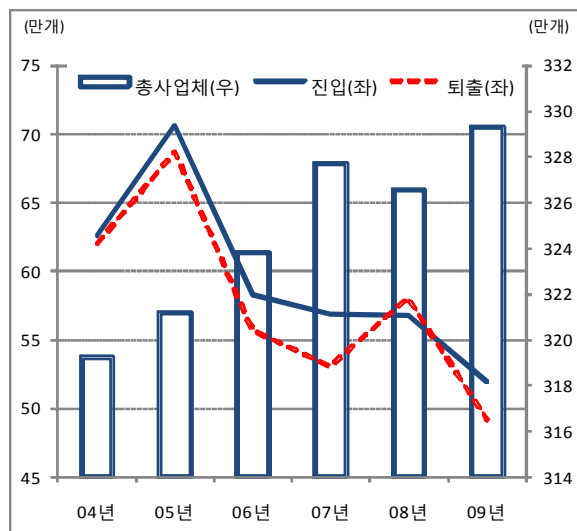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2.)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주 : 2004-2008년 동안의 연평균 신규사업체(611천개)를 대상으로 산출

○ (고용 불안 심화) 사업체의 낮은 생존율로 종사자 고용 불안 심화

- 2005년 이후 진입 및 퇴출 사업체 수는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총 사업체 수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
 -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진입보다 퇴출한 사업체 수가 더 많아 총 사업체수가 감소함
 - 신규사업체 진입은 2005년 70만 6,000개 수준으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52만개를 기록
 - 휴업·폐업으로 인한 퇴출 사업체 수는 2005년 68만 7,000개 수준에서 2007년 53만 1,000개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금융위기로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만개를 기록하였고, 이후 2009년 49만 2,000개로 감소
- 사업체의 신규진입 및 휴업·폐업으로 인한 퇴출로 인하여, 연평균 216만 9,000명의 종사자가 진입하고 187만 8,000명이 퇴출되어, 매년 진입하는 종사자의 약 86.6%에 해당하는 수가 퇴출되고 있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의 경우 각각 연평균 42만 3,000명, 33만 6,000명의 종사자가 진입하고, 39만 4,000명, 29만 5,000명이 퇴출되고 있음
 - 제조업의 연평균 진입 종사자수가 31만 5,000명이고, 퇴출되는 종사자수가 32만 명으로, 순진입 종사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

< 연도별 진입과 퇴출 >

(단위 : 만개)



< 종사자의 진입과 퇴출 >

(단위 : 천명)

	진입	퇴출
도소매	423	394
운수업	147	123
숙박·음식점	336	295
개인서비스	114	90
제조업	315	320
부동산·임대업	78	62
기타	756	594
전체	2,169	1,878

자료 : 통계청(2011.2.)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주 : 2004~2008년 동안의 연평균 신규사업체(611천개)를 대상으로 산출

3.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 자영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 (창업이 아닌 재취업 유도) 비자발적 창업 감축
 - 자영업 위기의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간의 과다경쟁’이므로, ‘창업지원 정책’에 앞서 ‘재취업 유도 정책’이 강화될 필요
- (‘자율규제 환경’ 마련) 고용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Worknet 등이 존재 하듯,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 필요
- (‘준비된 창업’ 육성) 창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자가 충분한 준비를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영업 창업시 준비기간이 짧고, 정확한 정보 획득 및 교육이 부재함
- (자영업주의 고용창출 지원) 1인 자영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건실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프랑스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주에게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
 - 벨기에와 아일랜드에서도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금보조금을 지원
- (계층별 자영업 진흥 정책)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 필요
 - (취약계층)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월세보조, 창업자금 마련 및 저금리융자 등의 정책 필요
 - (고학력 자영업자) 전공과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자영업을 창업하도록 유도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 (베이비부머) 우선, 은퇴 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에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업종으로 유도하는 정책 필요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별첨1> 연도별 고용 및 자영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취업자	고용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 자 비율	실업률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00	36,186	21,156	6,395	4,608	2,357	13,360	1,458	4,407	1,931	7,795	36.8	4.4
2001	36,579	21,572	6,714	4,726	2,218	13,659	1,554	4,497	1,863	7,913	36.7	4.0
2002	36,963	22,169	6,862	4,886	2,433	14,181	1,617	4,574	1,797	7,988	36.0	3.3
2003	37,340	22,139	7,269	5,004	2,130	14,402	1,629	4,413	1,694	7,736	34.9	3.6
2004	37,717	22,557	7,625	5,082	2,188	14,894	1,679	4,431	1,553	7,663	34.0	3.7
2005	38,300	22,856	7,917	5,056	2,212	15,185	1,664	4,508	1,499	7,671	33.6	3.7
2006	38,762	23,151	8,204	5,143	2,204	15,551	1,632	4,503	1,466	7,600	32.8	3.5
2007	39,170	23,433	8,620	5,172	2,178	15,970	1,562	4,487	1,413	7,463	31.8	3.2
2008	39,598	23,577	9,007	5,079	2,121	16,206	1,527	4,443	1,401	7,371	31.3	3.2
2009	40,092	23,506	9,390	5,101	1,963	16,454	1,517	4,194	1,341	7,052	30.0	3.6
2010	40,590	23,829	10,086	5,068	1,817	16,971	1,499	4,093	1,266	6,858	28.8	3.7
2011	41,052	24,244	10,661	4,990	1,746	17,397	1,505	4,088	1,254	6,847	28.2	3.4
연평균 증감률	+1.2	+1.2	+4.8	+0.7	-2.7	+2.4	+0.3	-0.7	-3.8	-1.2	-8.6% p	-1.0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별첨> 월별 고용 및 자영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취업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율	실업률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09.01	39,864	22,861	9,102	4,982	1,969	16,053	1,468	4,120	1,221	6,808	29.8	3.6
'09.02	39,900	22,742	9,194	4,862	1,897	15,953	1,466	4,093	1,231	6,789	29.9	3.9
'09.03	39,937	23,110	9,174	4,941	1,961	16,076	1,484	4,230	1,321	7,034	30.4	4.0
'09.04	39,978	23,524	9,227	5,051	2,076	16,353	1,509	4,256	1,406	7,171	30.5	3.8
'09.05	40,027	23,720	9,316	5,076	2,092	16,484	1,521	4,270	1,445	7,236	30.5	3.8
'09.06	40,078	23,967	9,340	5,281	2,115	16,736	1,547	4,259	1,425	7,231	30.2	3.9
'09.07	40,125	23,828	9,383	5,255	1,952	16,589	1,546	4,288	1,405	7,239	30.4	3.7
'09.08	40,168	23,620	9,472	5,117	1,890	16,479	1,494	4,266	1,381	7,141	30.2	3.7
'09.09	40,201	23,805	9,606	5,151	1,931	16,687	1,515	4,220	1,382	7,118	29.9	3.4
'09.10	40,236	23,856	9,628	5,170	1,892	16,690	1,549	4,221	1,397	7,166	30.0	3.2
'09.11	40,277	23,806	9,603	5,256	1,931	16,790	1,562	4,134	1,320	7,016	29.5	3.3
'09.12	40,316	23,229	9,632	5,074	1,849	16,555	1,543	3,971	1,161	6,674	28.7	3.5
'10.01	40,387	22,865	9,712	4,860	1,725	16,297	1,530	3,945	1,094	6,569	28.7	5.0
'10.02	40,420	22,867	9,786	4,838	1,657	16,282	1,511	3,977	1,097	6,585	28.8	4.9
'10.03	40,455	23,377	9,926	4,976	1,714	16,617	1,506	4,072	1,182	6,761	28.9	4.1
'10.04	40,489	23,924	10,011	5,147	1,836	16,994	1,499	4,159	1,272	6,930	29.0	3.8
'10.05	40,533	24,306	10,078	5,223	1,953	17,255	1,489	4,220	1,342	7,051	29.0	3.2
'10.06	40,572	24,280	10,089	5,165	1,938	17,193	1,517	4,203	1,367	7,088	29.2	3.5
'10.07	40,615	24,301	10,107	5,215	1,905	17,228	1,497	4,209	1,367	7,073	29.1	3.7
'10.08	40,651	24,005	10,151	5,122	1,775	17,048	1,477	4,150	1,331	6,958	29.0	3.3
'10.09	40,681	24,054	10,217	5,106	1,780	17,103	1,481	4,124	1,346	6,951	28.9	3.4
'10.10	40,715	24,172	10,280	5,089	1,809	17,178	1,496	4,128	1,370	6,994	28.9	3.3
'10.11	40,755	24,109	10,334	5,069	1,898	17,300	1,496	4,034	1,278	6,809	28.2	3.0
'10.12	40,803	23,684	10,347	4,999	1,808	17,154	1,488	3,899	1,144	6,531	27.6	3.5
'11.01	40,843	23,196	10,305	4,848	1,680	16,832	1,484	3,800	1,081	6,365	27.4	3.8
'11.02	40,878	23,336	10,390	4,781	1,684	16,856	1,497	3,861	1,122	6,480	27.8	4.5
'11.03	40,918	23,846	10,543	4,782	1,740	17,065	1,502	4,052	1,227	6,781	28.4	4.3
'11.04	40,953	24,303	10,618	4,928	1,812	17,357	1,484	4,158	1,304	6,946	28.6	3.7
'11.05	41,003	24,661	10,708	5,064	1,854	17,626	1,494	4,167	1,374	7,035	28.5	3.2
'11.06	41,033	24,752	10,716	5,132	1,872	17,720	1,495	4,173	1,364	7,032	28.4	3.3
'11.07	41,087	24,636	10,718	5,137	1,811	17,667	1,500	4,167	1,302	6,969	28.3	3.3
'11.08	41,119	24,495	10,710	5,031	1,769	17,510	1,491	4,189	1,305	6,985	28.5	3.0
'11.09	41,140	24,318	10,764	5,047	1,567	17,378	1,508	4,184	1,248	6,940	28.5	3.0
'11.10	41,169	24,673	10,796	5,094	1,718	17,608	1,531	4,200	1,334	7,065	28.6	2.9
'11.11	41,208	24,589	10,838	5,047	1,765	17,650	1,532	4,134	1,273	6,939	28.2	2.9
'11.12	41,273	24,125	10,824	4,986	1,686	17,496	1,545	3,975	1,109	6,629	27.5	3.0
'12.01	41,321	23,732	10,769	4,868	1,547	17,184	1,553	3,920	1,075	6,548	27.6	3.5
'12.02	41,369	23,783	10,807	4,877	1,542	17,225	1,550	3,941	1,066	6,558	27.6	4.2
'12.03	41,415	24,265	10,899	4,997	1,525	17,421	1,559	4,119	1,166	6,844	28.2	3.7
'12.04	41,459	24,758	10,957	5,095	1,627	17,679	1,583	4,222	1,274	7,079	28.6	3.5
'12.05	41,519	25,133	11,064	5,153	1,718	17,935	1,607	4,240	1,351	7,198	28.6	3.1
월평균 증감률 ('11-'12)	+0.1	+0.7	+0.6	+0.5	+0.2	+0.5	+0.7	+0.9	+1.9	+1.0	+1.2 %p	-0.7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별첨3>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자 현황

(단위: 명)

업종	사업자수	사업자당 인구수	업종	사업자수	사업자당 인구수
음식점	439,223	114	인테리어	19,752	2,520
의류점	83,757	595	꽃가게	18,507	2,690
부동산중개업	76,681	650	체인화음식점	14,729	3,380
식품종합소매	68,800	724	편의점	14,596	3,411
미용실	66,759	746	문구점	14,269	3,489
호프집 간이주점	64,897	767	인터넷PC방	14,212	3,503
예체능학원	47,080	1,058	이발소	14,199	3,506
입시·보습학원 외국어학원	44,333	1,123	통신기기판매	11,511	4,324
자동차수리	35,195	1,415	제과점	11,022	4,516
노래방	34,238	1,454	철물점	10,169	4,895
화장품	27,181	1,832	서점	8,986	5,539
여관업	24,796	2,008	안경점	7,318	6,802
슈퍼마켓 연쇄점	24,170	2,060	가구점	7,103	7,008
식육점	21,055	2,364	과일가게	7,036	7,075
세탁업	20,822	2,391	목욕탕	6,704	7,425
30대 생활밀접형 자영업자 전체				1,259,100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주 : 2009년 12월말 기준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20일	7월 2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46	1.44	-0.02%p
	엔/달러	81.19	80.66	77.66	78.73	78.14	-0.59¥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276	1.2146	-0.013\$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823	12,888	65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670	8,443	-22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88	2.81	-0.07%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41.2	1,146.9	5.7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22.9	1,782.5	-40.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20일	7월 26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1.42	89.45	-1.97\$
	Dubai	88.80	106.75	104.89	103.39	100.49	-2.90\$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4.57	297.47	-7.1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